세탁물의 실내건조 냄새 대응 및 오염방지 소재 ‘soil free’

시키보

최근 학생복용 셔츠 원단을 주력으로 전개하고 있는 시키보에서 제안한 세탁물의 실내건조시 발생하는 냄새를 방지하는 속건성 셔츠 원단인 ‘Room Dry’가 호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시키보는 자사의 기능성가공 기술을 적용하여 앞으로 교복용 원단에 방오가공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Room Dry’는 세탁물의 실내건조시 발생하는 냄새에 대응한 소재로 항균·방취 및 속건성을 가지고 있어 세탁물 실내건조시 발생하는 냄새의 원인균인 모라크세라균(걸레 썩는 냄새 원인균)의 번식을 억제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대기업의 학생복용 브랜드에서 원단을 채용하는 등 제품에 대한 평가가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

시키보는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앞으로 기능성 소재를 중점적으로 셔츠·블라우스용으로 공급하려고 한다. 이러한 기능성 소재 중 하나가 새롭게 개발한 방오가공소재 ‘soil free’이다. 이 소재는 섬유제품의 기능성을 인증하는 제 3자 기관인 섬유평가기술협의회의 “SEK 방오가공 마크”도 취득하였다.

시키보는 이 마크의 신뢰성을 알리기 위해 학생복 셔츠분야로의 보급을 진행할 생각이다. 또한 셔츠 뿐만 아니라 학교 체육복에도 적용하려고 한다. 이미 통학용 폴로셔츠 등에 납품실적이 있으며, 니트 제품을 주축으로 하는 당사 학교체육복에도 소취가공이나 세탁물 건조시 발생냄새 방지가공, 방오가공 등 기능성 소재를 전면에 내세워 학생복 어패럴, 스포츠웨어 메이커의 학생복 부분 등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방오가공 'soil free'를 처리한 학생복용 원단>

♣ 섬유뉴스(2013. 9. 30)